



“청소년

충남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金宣鏞씨(44세, 충남 대전시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건계장).

그는 이 순간에도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누구나 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보통사람이다.

자그마한 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은 지난 20년간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이나라의 아들·딸들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취이며, 중년의 나이에 어울리지않는 동안의 눈동자는 지난 세월을 학생들과 어울려 웃고 울었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아마 저보다 다른 분께서 제업무를 보셨으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એષે 자신이 해왔던 일을 감추려는 그

의 모습에서 기자는 매사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말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뒤떨어진 의료분야는 아직도 개척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새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마음껏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초체력, 즉 건강을 제대로 관리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만이 비로소 국가에서 바라는 훌륭한 역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앞으로도 건협에서는 보건교육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릴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계몽함으로써 의료분야에서 선진조국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건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충남도내 74만 여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출장검사를 해주시는 건협 충남지부직원여러분께 항상 감사하

건강관리가 국가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대전시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건계장 金 宣 鏞 씨

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업무에만 그치지 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건강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계몽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할애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평소 즐기는 일이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묻자, 새벽의 찬 공기와 이슬을 마시며 등산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건강의 비결이며 퇴근길에 뒷골목 포장마차속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소줏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라한다. 부친과 장인이 모두 현직교육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유서 깊은 인심의 고장에서 태어나 살아온 충청도 토박이로서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건강한 생활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야하고 또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건협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느지역,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든지 항상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서 천생연분이라고 불리운다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만 넷을 두어 딸부자 집이라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金 宣 鏞 氏를 보면서 기자는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어진 환경속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무 조건없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김 정 현 · 글〉

